

농어촌공 철원지사, 청년농업인 소통 간담회

의견수렴 및 농지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

기사입력 2025-03-11 15:20

[인쇄](#)



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(지사장 김용구)는 11일 본사에서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. 이번 간담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0명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,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. 또한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간담회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.

철원지사는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,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지난해 577농가에 73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김용구 지사장은“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”며“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. 또한 SNS 단톡방을 활용해 이번 소통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관리자 (korea78123@hanmail.net)